전주시 상반기 인사 "비교적 공정"

주무담당·사무관 확대
일부 서기관 승진 놓고
청탁·줄대기 행태 여전

감사합니다 선생님 12일 오전 부산시 어느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담임교사를 헹가래 치고 있다.

전주시 올 상반기 정기인사가 정실 등 잡음 논란에서 벗어나 비교적 공정하게 단행됐다는 후평이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서기관 승진 인사를 놓고 일부 사무관들의 도를 넘는 청탁, 줄대기 행태가 여전해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서기관급 보직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11일 6급 이하 공무원까지 인사발령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5급 사무관 승진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최대 폭인데다 예술관련 부서와 U20월드컵 추진 부서 2곳이 추가로 신설돼 사무관급이 모두 9자리로 늘어나 승진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시는 무리한 서기관 승진 인사보다는 주무담당과 사무관을 확대 포진시키는 방식으로 공정한 인사에 주력, 예년과 달리 비교적 투명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기인사에 앞서 김승수 시장이 직접 나서 인사청탁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주무담당(계장) 위주의 승진 관행에서 벗어나 "주무담당은 2년 내 승진을 못한다"고 선을 긋고 나서 승진 인사를 둘러싼 인사청탁 폐해 척결에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의 인사방침은 승진과 근평이 유리한 국·과 주무담당의 보직을 받기 위해 청탁 등 일 보다는 자리를 중시하는 조직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주무담당이 고생은 하지만 승진을 기대하고 청탁을 하는 것은 조직의 패악이 되고 있다"며 "주무담당으로 2년 근무 후에는 희망부서, 호봉승급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이후 국 주무담당의 경우 2년 후 승진이 아니라, 다른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국 주무담당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 정기인사는 비교적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지만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행태는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행정직 사무관 누구 누구는 서기관 승진을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렸다는 후문이 들리는가 하면 황호문(토목직)본부장의 퇴직으로 승진을 기대한 토목직 사무관들의 추태는 가관이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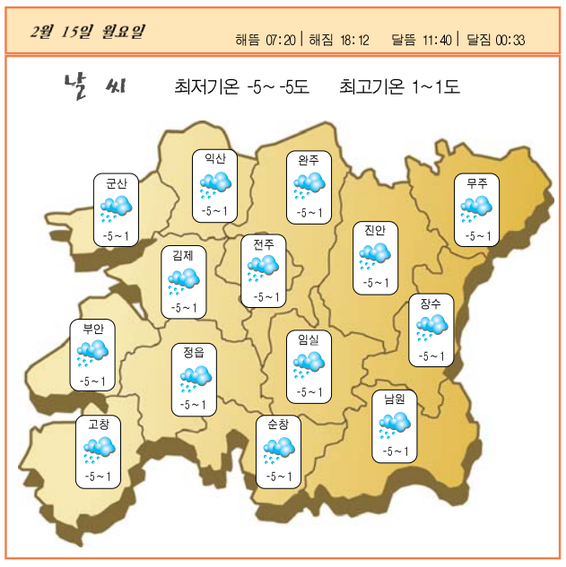
A모 과장은 시의원들을 앞세워 집행부에 청탁해 집행부 고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A사무관은 담당업무도 잘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인사파문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망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 토목부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항공대대 이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제자리 걸음를 하고 있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다는 자신의 영달에만 집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생태도시국장의 휴직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관련 토목직 B사무관은 "전주시 산하에 토목직 출신 서기관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 같다"며 "토목직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토목직 서기관 승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모집

19일까지 4개분야 신청접수

전주시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6년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5,252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익활동은 전주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취업·창업형 및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민간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3,988명) △공동작업·제조판매(214명) △전문서비스형(650명) △인력파견형(400명) 등 4개 분야다.

공익활동은 각 동 주민센터 및 15개 수행기관에서 통합모집하고(1인 2개 사업까지 신청가능), 취업·창업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수행기관별로 별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사진(1매), 주민등록등본(1매), 신분증, 의료보험증 등을 가지고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근무조건은 공익활동의 경우 1일 3시간 이내(월30시간), 주 2~3일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참여하고, 취업·창업형 및 인력파견형은 사업운영 수익률 및 고용된 기업의 근로 대가에 따라 정해진다. /김영재 기자

'아이들이 써 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

도내 초·중·고 학생 28명 어르신 삶 담아 15권으로 펴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묶어 자서전 형식으로 만든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써 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오는 15일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는 앞선 세대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9월에 시작했으며 4개월 만에 책으로 엮어 출판기념회를 하게 된 것.

이번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선 김제 치문초등학교 학생 7명이 참여하는 '할머니로부터의 편지'를 비롯, 총15권의 자서전이 공개된다.

할머니로부터의 편지는 치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손계은 할머니의 삶을 그림책으로 엮은 것이다.

또 백산중 8명의 학생은 김성철 어르신을 비롯한 9명을 삶을 '응답하라, 나의 청춘'으로 엮어냈으며 완산중 학생들도 박유선 어르신을 비롯해 6권의 자서전으로 펴냈다.

이외에도 무주중 백산중 이일여중 남원여고 서영여고 전주사대부고 학생 등 총 52명의 학생이 참여해 28명의 어르신의 삶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연말 고창지역 학생 22명도 어르신들의 자서전 '말하지 않아도'를 나무늘보 출판사에서 펴냈으며, 전주여고, 태인고, 봉서중 등 20여 개 학교에서 수십 권의 자서전을 이른 시일 안에 출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선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 등 노인관련 단체를 비롯해 자서전의 주인공인 손계은, 고복녀, 임길택, 신예근 등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자서전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솔빛중 팀, KRC FLL대회 최우수상

로봇디자인 부문… 스페인 세계대회 출전권 획득

도내 중학생들이 로봇디자인 부분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둬 세계 출전권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솔빛중학교 '솔빛공방' 동아리팀은 지난달 30일(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2016 KRC(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FLL(퍼스트 레고 리그)대회에서 로봇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인 'Mechanical Design Award(기계적인 설계상)'을 수상하고 오는 5월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열리는 세계대회 출전권을 얻어냈다.

'솔빛공방' 팀은 전주솔빛중학교 2학년 김정인, 김하은, 김두은, 나현수, 김건우, 김영준, 이근우, 이하늬, 한은순, 권형구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현수막 쓰레기 재활용'을 주제로 폐현수막으로 바지를 제작, 착용해 현존하는 폐현수막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관련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현수막 쓰레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코리아로봇챔피언십(KRC)은 전세계 70여개국 30만명 이상 참가하는 미국 FIRST 재단의 로봇대회인 FLL(FIRST LEGO League), FTC(FIRST Tech Challenge), Jr.FLL(Junior FLL)의 한국대회로 치러진다. /고민형 기자